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순'이 됩니다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깎는날!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산
 Tel. 02)720-8489

“부부금실 절에서 찾아요”

마곡·범어·직지사 등 부부·가족수련회 반응 좋아

조계종 포교원 ‘부부성장프로그램’ 보고서 발간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지?’ 부부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간다. 급증하는 이혼율, 그에 따른 자녀탈산과 가정해체. 가족 구성원간의 신리와 의사소통 단절에서 오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 불교가 그 명제를 갖고 있다. 사찰에서 불교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부부나 가족 문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미)이 최근 이혼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부부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부성장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주 마곡사, 김천 직지사 등 개별

사찰들도 부부·가족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과 사찰들이 이차림 부부관계 및 가정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부갈등과 가정위기 해소 방법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을 자연스럽게 사찰로 이끌어 불교적 정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포교목적도 있다. ‘부부성장 프로그램’은 포교원이 특성과 포교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연구·개발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된 남녀의 차이점 인식과 올바른 부부관

계 정립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상체’ ‘인생 그래프 그리기’ ‘위아공존(We are共存)’ 등. 특히 사상체 프로그램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고집 멸도’를 고-부부갈등 이해하기, 집-갈등 원인 통찰하기, 멸-갈등 해결하기, 도-바람직한 부부대화법 익히기 등으로 응용해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련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곳은 공주 마곡사와 부산 범어사, 경기 흥국사 등. 마곡사의 부부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부부명상 등 부부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상 생활에 지체 소용했던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사랑, 가족에게 3배하기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한 일깨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찰 수련법이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활용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의 실천방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불교에 대한 신심과 수행력, 교리에 대한 이해 및 상담심리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지도자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과 사회적 환경에 따른 부부 및 가족 유형별 연구와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어져야 한다. 포교원 박희승 과장은 ‘부부성장 프로그램이 각 사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보완·수정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2)2011-1911 김은경 기자 ipok@buddhapia.com

“세계 평화 함께 기원”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 양국 불교계의 우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8-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고메이지(光明寺) 등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범장)와 일한불교교류협회의 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기원과 구원’을 주제로 세계평화 기원 법회, 학술대회, 제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범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총회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회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한국측 대표단과 미야바야시 쇼겐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즈타니 코쇼 정토종 총무원장, 니시야마 료고 천태종 총무원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관원기사연 일본 도쿄 · 가미쿠라= 박봉영 기자**

생협운동 전국 확산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건강 먹거리 보급 ‘쓰레기 만두’ 충격... 우리쌀 공양 운동도

최근 ‘쓰레기 만두’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불교계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협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마), 맑고향기롭게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과 이를 소비할 농촌을 연결하는 활동을 펼쳐 온 인드라마는 불교생협과 친환경적 먹거리의 공급과 소비 문제를 다룬 토론회를 개최해 불교생협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생협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토론회는 6월 16일 남원에서 열린다. 인드라마는 불교생협을 중심으로 ‘우리 쌀을 공양미로 올리자’는 운동도 추진 중이다. 도법 스님(상인대포도 전문농부)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장점을 알릴 생각이다. 인드라마는 농촌 지역 생협들과의 연대활동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

도 시흥 인드라마 불교생협 물류창고와 강원도 횡성 지역 여성농민회의 생협을 연결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서로 맞추어주는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드라마 회원들 중심으로 한 서울 산림동, 인천 부평 주민들이 친환경 유기농 농사체험을 갖는 생태농업 체험행사도 계절마다 열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알뜰시장을 운영 중인 맑고향기롭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불교생협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모아 ‘알뜰환경지킴이’ 모임을 지난 3월 이미 구성했다. 조계사 역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생협과 관련한 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진각종도 친환경 먹거리를 공동구매, 공동판매하는 생협 발족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한·티베트 교류 넓힌다

진각종 대표단, 달라이 라마 만나 협력 논의

효암 통리원장 등 진각종 대표단이 6월 10일 인도를 방문, 18일까지 달라이라마가 주재하는 법회에 참석하고, 한·티베트 불교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인도를 방문한 진각종 대표단은 13-15일 달라이라마가 주재하는 금강제 37존 만다라 관정법회에 참석하고 달라이라마를 예방할 환담을 나눴다. 대표단은 또 파보선원

주지 계수왕다 스님을 만나 한·티베트 불교 교류에 관한 협정도 체결한다. 이번 진각종 대표단의 인도 방문은 티베트 밀교사찰 파보선원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진각종 대표단은 효암 통리원장, 교육원장 혜정 정사, 포교부장 무외정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강유신 기자**



청주 풍주사가 6월 11일 헌혈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주지 범주 스님의 헌혈장면. 뒤로 헌혈 차를 기다리는 신도들 보인다.

“헌혈로 보시정신 실천해요”

청주 풍주사 헌혈캠페인
 충북 청주 풍주사(주지 범주)는 6월 11일 관음제일을 맞아 경내 마당

에서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범주 주지 스님을 비롯해 4백여 신도들이 동참한 이 헌혈 행사를 위해 충북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헌혈 버스를 풍

주사로 보내 편의를 도왔다. 신도들과 함께 헌혈을 한 범주 스님은 “헌혈인구가 급격히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보시 정신을 피 흘리는 누면서 새롭게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주=고영배 기자**

‘대한민국 차 품평회’ 조직위원장 여연 스님 28면

새기획 ‘지역불교현장을 가다’ 7면

‘할’

이놈의 세상
 군시렁 군시렁
 시비방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은 아름다워
 마음 탐욕 줄여
 다짐

그림 · 조태호

담월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남부·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성명서

종단의 원용화를 저해하는 법장 총무원장스님의 독단적 총무원정 및 인사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개혁과 1998년 미증유의 종단 폭력사태를 사부대중의 허니된 원력으로 극복하고 내적으로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 외적으로 땅에 떨어진 불교의 대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정예회의의 고구려형 지도를 바탕으로 전인 총무원장스님과 중앙총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허니된 마음으로 정진하여 종단을 한층 안정화시키고 화합되게 하였다. 이러한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기대 속에 ‘침어와 화합’, ‘활개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 총무원장체제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 총무원장스님은 원용종단 구현이라는 사부대중의 열망을 실현시키기보다는 앞으로는 화합과 원용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독단적 총무원정과 측근 정실인사를 자행하여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종도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무릇 승가의 제1의는 ‘화합’이요, ‘화합하지 않는 승가는 인연의 사표가 될 수 없음’이 고승의 제보보살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앙총회의원들은 종단의 원용화를 위하여 현 총무원장스님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종단 운영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종도의 대의기원인 중앙총회의원의 본연적 역할이며, 종도에 대한 도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총무원장스님은 일관성 있는 인사기준을 정립하라.
 현 총무원장스님은 특정 문중이나 계파를 벗어나 원용화만을 위한 인사를 천명하면서, 특히 주지 인사에 있어 수행과 포교, 재정투입과 등을 반영한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현 총무원장스님은 취임 이후 고과인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남용하여 본·말사(명성사, 감사, 동화사, 약사사 등) 주지의 인사문제, 총무원 부·국장 및 재가 총무원, 종단의 직영사찰(선선사, 보문사에 전례가 없는 정실 파행인사를 단행하였고, 급기야는 부처님 탄생 2500주년을 맞아 주지 지명제 경연회를 하였으나, 종도들의 비난 여론이 빚발치자 포괄적 이유로 미루었다가 다시 조계사 주지 해임장을 발부하여 현재 종도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조계사는 1998년 종단사태 이후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현 주지가 취임하였고, 종단개혁 10주년을 맞이하여 불, 대, 사찰재정 투명화와 수도권 포교 활성화 등 많은 부분에서 종단개혁의 모범적 지영사찰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이는 자리가 공인하는 바이며 2003년도에 우수 사찰로 지정되어 총무원장의 표창장이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계사 주지에게 정실하며는 총무원 집행부의 책임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사찰재정 투명화와 수도권 포교 활성화 등을 주장하는 현 총무원의 공책에도 아낀다는 명분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과 기준을 정립할 것을 총무원장에게 촉구한다.

총무원장스님은 독단적이고 전사적인 총무원정 운영을 지양하고 종인과 교구 고부 발전하는 원용종단을 지향하라.
 우리 중앙총회의원들은 총무원정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현 총무원장스님의 1년간의 총무원 정과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총무원장스님은 취임 정책 공약으로 법사 주지 인사권 교구기관 등 중앙직권자인 총무원정 권한을 대폭 지방교구에 이양하여 종인과 교구 고부 발전하는 원용종단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무원정 사서실을 확대 개편하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측근이라 하여 허물어 있는 자를 포함하여 재가 총무원을 대거 20여명이나 늘린 총원하는 등 공약에 역행하는 총무원정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화 시대를 지향하는 저급의 시정으로 볼 때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총무원장스님은 올바른 종단관과 역사관에 입각하여 종단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현 총무원정 체제는 1994년도 종단개혁의 흐름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올해는 종단 개혁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우리 중앙총회의원들은 전 종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지지속에 출범한 개혁회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원용종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가 종단개혁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에도 현 총무원장스님은 종단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우리 중앙총회의원들은 총무원장스님은 종단관과 역사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총무원장의 역할은 각 당파와 계파를 떠나 불자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 사회적 불교의 위상 제고에 전념하여 줄 것을 열원하며 종도들이 종단의 수장으로 모셨음을 감사하고, 지지세력 확보에 열안이 되어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독단적 총무원정을 하는 것은 1994년 이후 종단개혁의 취지와 노력을 뒤로 물리려는 반개혁적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총무원장스님은 조계사 재산관리인 지홍스님의 해임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총무원장스님은 6월 4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직영사찰법 제11조에 의해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해임장을 발부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지홍스님의 재산관리인(주지 직무대리)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영사찰법은 재산관리인의 해임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총무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직영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직영사찰법이 제시한 해임사유는 직무태만, 직무수행 능력부족, 보고의무 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급변 단행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에 대한 해임조치는 직영사찰법상의 해임사유에 어느 항목에 의거한 것인지 총무원장스님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6년간 조계사 주지스님 신심과 신도, 총무원들과 함께 일하여 내 모습에 과연 직무태만이란 것인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총무원장스님은 고유의 총무원장직 수행에 충실하라.
 총무원장스님이 본사 주지스님들의 친목단체인 본사주지연합회의 회장직에 왜 그 연연하는지 의아스럽다. 1994년도 종단개혁을 통해 본사 주지와 중앙총회의원의 경계가 금지되면서 본사와 중앙간의 중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총무원장스님이 주재하는 본사 주지회의를 중언에 마련했다. 즉 총무원장은 본사주지회의의 의장으로서는 교구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의 정책을 설명하는 공책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주지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해 여러해 동안 유지되어 온 사적인 친목단체인 본사주지연합회의 회장직을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종단 집행부의 수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고유의 총무원장직 수행에 충실하기를 바란다.